



2022.5.30.

국회미래연구원 | 국가미래전략 Insight | 46호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2. 5. 30.

Vol. 46

ISSN 2733-8258

발행일 2022년 5월 30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성문주

요약

I. 서론

II. 연구 방법 개관

III. 노동시장 취약계층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

IV. 정책제언

V.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요약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될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숙련 수준 향상·보완 및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사회적 이동성 향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질적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 유형을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 보유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경력단절·경력전환 근로자 등’으로 분류하고, 19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FGI 실시 및 이 중 7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함.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A 집단]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주요 연구결과**
 -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직무능력 개발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 자격증 취득을 통한 목표 경력경로 진입으로 나타남
 - 평생학습의 효과로 직무능력 향상이 있었다는 인식이 있으나 자격증 취득 교육이 실무와의 괴리로 효과가 미미하였다는 인식도 있으며, 적성 발견 및 진로 도움,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경험, 학습 및 일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함
 -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하여 연구참여자들은 취업 및 재취업 가능성이 향상되었으나 근로소득 수준 향상에는 미미한 영향이 있었고, 직업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함
- **[B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주요 연구결과**
 -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직업안정성 및 근로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전직 준비, 중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력 유지, 재취업을 위한 적성과 흥미 탐색, 조직 내 지위 상승 도모로 나타남
 - 평생학습 효과에 관하여는 직무능력 향상, 내적성장,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확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내적성장을 평생학습 성과로 두드러지게 인식함
 -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참여자가 학력 상승 및 직업안정성 향상을 경험하였으며, 재취업을 통해 유의미한 근로소득 수준 향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낙관적 태도를 형성하기도 함
- **[C 집단] 경력전환 및 경력단절 경험 근로자 집단 주요 연구 결과**
 - 평생학습 참여동기는 직장생활 중 전직 준비, 경력단절 후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 전직 후 새로운 직무에서 숙련 수준 향상, 학력, 직급, 직업안정성 향상 기대로 나타남
 - 평생학습이 경력전환을 통한 재취업 성공, 체계적인 형식교육을 통한 전문성 개발, 직업 및 학습에 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효과가 있었으나 단기 비형식교육 참여는 숙련 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인식함
 -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인식에 관하여는 경제활동 재개 및 유지, 경력전환을 통한 근로소득 수준 향상, 직업안정성 향상, 직업적 지위 상승에 평생학습이 기여하였다고 인식하였으나,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인식도 존재함

-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선행연구 결과 및 전문가 대상 FGI 실시 결과와 종합하여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학습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숙련수준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성 확보 및 접근성 향상
 -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지원 서비스 연계
 -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 체계 확립 및 정착
 -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직종으로의 경력전환 지원

I. 서론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발전 가속화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저숙련·저학력 근로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화 비용 감소,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 및 사양산업과 신산업의 등장은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를 증가시키며¹, 변화하는 환경에서 저숙련·저학력 근로자나 임시직·비정규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겪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임²
 - 이로 인해 노동 환경이 양극화되고 학력과 숙련 수준에 따른 근로자들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³
- 저학력·저숙련의 특성을 갖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숙련 수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향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이동성 향상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의 역할이 강조됨⁴
 - 평생학습을 통해 성인학습자는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도적인 삶의 태도 및 삶과 학습에 즐거움을 느끼는 등 내적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⁵
 - 이러한 평생학습의 효과가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가져온다면, 취약계층 개인에게는 사고방식, 태도, 행동의 변화와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⁶, 사회적으로는 사회신뢰, 사회통합, 시민의식 증진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⁷
- 그러나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참여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생학습의 효과와 역할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 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저학력·저소득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⁸
 - 이러한 현상은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간 기술(skill)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 저해 및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 됨⁹

1 김중윤 외(2020), ILO(2018)를 박병영 외(2019)에서 재인용

2 김동규 외(2017), 박가열 외(2016), 오호영(2018)

3 김중윤 외(2020), 류기락(2017)

4 나영선, 최지희, 김상호(2003)

5 변중임, 홍준희, 조윤성(2020), Schuller et al.(2004)을 정혜령 외(2015)에서 재인용

6 Kelly and Kelly(2009)

7 강태중, 조순옥(2010); 나영선 외(2003); OECD(2011)

8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20)

9 양흥권(2012), 이정우(2019), 한송희(2002)

-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평생학습¹⁰ 참여 동기, 기회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생학습 참여가 인적자본, 정체성 확립 및 긍정적 심리 상태, 사회적 네트워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¹¹ 향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취약계층의 주관적 인식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함

II. 연구 방법 개관

-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그룹’으로 정의하고, 노동시장 취약계층 유형을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 보유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경력단절·경력전환 근로자 등’으로 분류함
- 연구 참여 희망자는 본 연구에서 정의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임금근로자¹²로서 평생 학습(평생직업능력개발) 참여 경험이 있는 자를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을 통해 모집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스노우볼 표집 기법(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음. 최종적으로 19명의 연구참여자를 선정함
- 연구참여자 각자의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특성이 비슷한 참여자별로 그룹화하여([표 1]),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및 개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분석함¹³
 - 경험과 특성이 유사한 집단별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집단 내 연구참여자 간 경험 공유를 통해 논의를 촉진하고자 FGI를 활용함
 - FGI 및 개인 심층인터뷰는 2021년 6월~8월에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0 본 연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성인 근로자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참여하는 형식교육(예: 졸업학력인정과정 등), 비형식교육(예: 직장 혹은 직업 훈련기관 개설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강 등), 무형식학습(예: 사회적 관계 혹은 직무 수행을 통한 학습 등)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으로 정의함.

11 사회적으로 계층이동이 가능한 정도를 뜻하는 개념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력이나 소득 이동 등과 관련된 계층의 세대 내 이동(남재욱 외, 2019; 한준, 2016)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둠.

12 평생학습과 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거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해당하였던 임금근로자도 포함함.

13 연구참여자 모집, 선정, 인터뷰 실시 정보, 연구 도구, 자료 분석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03호(성문주 외, 2021)의 「제3장 연구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비대면(ZOOM)으로 수행함

- 사전 개발된 기본 질문지를 바탕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함

[표 1] 노동시장 취약계층 그룹인터뷰 실시 정보

집단	세부 그룹	FGI 대상자	대상자 그룹 특성
A	그룹 1	4명	고졸 학력의 저숙련 근로자 그룹
	그룹 2	4명	고졸 학력의 자격증 보유 근로자 그룹
B	그룹 1	4명	노동시장 입직 이후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그룹
C	그룹 1	3명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근로자 그룹
	그룹 2	4명	경력단절, 워킹맘 근로자 그룹

- FGI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더 풍부한 자료 수집을 위해 FGI 참여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추가로 인식 및 경험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참여자 7명을 선정하여 반구조화된 개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함
- 자료분석을 통해 FGI 집단별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와 참여 촉진·저해 요인은 무엇이며, 평생학습은 인적자본, 사회적 네트워크, 정체성 및 긍정적 심리상태 향상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었는지, 이러한 평생학습의 효과는 소득 수준, 학력, 직업안정성 등 사회적 이동성 향상에 어떻게 연계 혹은 연계되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함

III. 노동시장 취약계층 집단별 주요 연구결과

1. [A 집단]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주요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본 연구의 FGI A 집단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노동시장 입직 이후 학력 상승의 경험이 없고 경력초기에 속하며 숙련 수준이 낮은 연구참여자들로 구성됨
 - A 집단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A-1 집단은 기능 직종과 기술직종에 속한 근로자 4인으로 구성되었고, A-2 집단은 미용 관련 서비스 직종의 근로자 4인으로 구성됨

- A 집단 연구참여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노동시장에 입직하였고 현재 학력 또한 동일함. 나머지 1인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전공과는 관련 없이 고등학교 때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 A 집단 연구참여자들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의 연령이 20대로 대부분 노동시장 입직 이후 동일 직종에서 경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입직 이후 전체 직장 재직 기간은 대부분 3년 이하였고, 2인은 약 5년임. 나머지 연구참여자 1인은 동일 직종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직종 내에서 기존의 경력을 거의 인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경력 초기 근로자로 간주함
- A 집단 연구참여자들이 참여한 평생학습 유형은 다음과 같음
 - 기술직·기능직 종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기관에서 1년간의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 알선을 통해 혹은 스스로 구직활동을 해 취업하였으며, 미용 관련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필수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

(2) 주요 연구결과

■ 평생학습 참여 동기

- 직무능력 개발을 통한 소득 수준 향상
 - A 집단 연구참여자 중 기술직·기능직 종사자는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직무 성과를 높이고, 현재 과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업 수행 능력도 갖추어서 직무를 확장하여 임금수준이 더 높은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그 가능성을 높이고자 평생학습에 참여함
 - A 집단 연구참여자 중 미용서비스 직종 종사자는 직무능력 향상이 고객 수 및 매출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직무능력 개발을 통한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함
- 자격증 취득을 통한 목표 경력경로 진입
 - 미용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재취업 혹은 본격적인 경력경로 진입을 통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국비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함

■ 평생학습 참여 유지의 촉진 및 저해 요인

- 교육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과 지지적 태도
 - 교육프로그램 강사의 전문성과 열정, 학습자에 대한 지지적 태도,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진정성은 연구참여자들이 해당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료학습자의 지지**

-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시 자신의 학습이 부진해도 이해해 주고 도와주는 등 동료학습자들의 심리·사회적 지지는 연구참여자들이 해당 평생학습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 **학습지원체계 미비**

-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용에 관심이 있어 교육 참여를 결정했으나, 교육내용 난도가 높아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나타남

■ **평생학습 효과에 관한 인식**

◦ **직무능력 향상**

- 기술직·기능직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 내용을 쉽게 이해하였고,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였다고 인식하며, 업무 확장에도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함

- 미용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업무에 사용하는 제품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이 새로운 헤어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고객 요구 및 상황을 반영하며 제품 사용법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에 실제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 두 직종 종사자들은 일터에서 업무를 실제 수행하며 사수로부터의 비공식적 혹은 의도적인 (planned) 코칭이나 OJT(on the job training)와 같은 무형식학습을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직무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인식함

◦ **실무와 자격증 취득 교육내용 간 괴리로 효과 미미**

- 미용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공공 및 직업훈련 기관 주도의 자격증 취득 연계 교육이 기초교육으로서 자격증 취득을 통한 경력경로 진입이라는 결과 그 자체만 의미가 있었고,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되어 숙련수준 향상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함

◦ **적성 발견 및 진로 도움**

- 20대 경력초기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비형식교육이나 무형식학습 형태의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었음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경험**

-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와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취업 알선, 경력 상담 및 경력 관리에 도움을 받기도 함
-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동료학습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회사 생활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식·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경력 초기 연구참여자들의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줌
- 이전 학령기 학교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동료학습자의 학습을 돕고 이를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나타남
- 교육 참여 중 동료학습자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나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 등으로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학습 및 일에 대한 태도 변화

-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학습동기 향상 경험을 하였으나, 또 다른 일부는 평생학습 참여가 학습동기나 학습태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식함
- 자격증 취득 혹은 취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며 ‘초·중등학교 시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학습몰입 경험을 하기도 함
- 비형식교육을 통해 체계를 갖춘 명시적 지식의 형태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직무 수행에 자신감을 갖게 된 연구참여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인식

○ 취업 및 재취업 가능성 향상

- 공공 및 직업훈련 기관 주도의 비형식교육 참여가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 시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 비형식교육을 통해 현재 수준의 경제활동이 가능하였으므로 취업, 재취업, 경력경로 이동 등 고용가능성 제고에 평생학습의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는 평생학습의 성과에 만족함

○ 근로소득 수준 향상에 미미한 영향

- 평생학습 참여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경력초기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함
- 연구참여자 중 일부는 이직을 통해 근로소득 수준 상승을 경험하였으나, 이를 가능하게 한 요인은 평생학습이라기보다 경력이라 인식함

◦ **직업안정성 향상과의 낮은 연관성**

- 기술직·기능직 종사자는 한 직장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안정성보다는 이직을 통한 급여 및 처우 상승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고용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장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경험보다 경력을 중시한다고 인식함
- 미용서비스 직종 종사자는 계약 시 종사상 지위 설정, 이익 배분 방식 등에 따라 고용안정성이 좌우 되므로 평생학습은 고용안정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함

2. [B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주요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본 연구의 FGI B 집단은 노동시장 입직 이후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입직 이전에 비해 학력이 상승한 경우나 고용상 지위 향상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자들로 구성됨
- B 집단 연구참여자들은 입직 이후 사무직 및 전문직 관련 직종에 종사하였으며, 대부분 여러 번의 재취업 및 경력전환의 경험이 있음
- 노동시장 입직 시 2인은 고등학교 졸업, 2인은 4년제 대학 졸업의 학력이었고, 과거에 참여하였거나 현재 참여 중인 형식교육(학점은행제 포함)은 학사학위과정 3인, 석사학위과정 3인, 박사학위과정 3인임
- 연구참여자들은 형식교육에 참여한 경험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 직업능력개발 과정이나 대학 내 부설기관에 개설된 교육과정, 지방자치단체 주관 교육, 사설학원 자격증 취득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학습에 활발히 참여한 경험이 있음
- B 집단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20대 1인, 40대 2인, 50대 1인이며, 성별은 남성 2인, 여성 2인임

(2) 주요 연구결과

■ 평생학습 참여 동기

◦ **직업안정성 및 근로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전직 준비**

- 불안정한 고용상 지위, 불만족스러운 급여 및 처우, 조직 경영악화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를 경험한 후 평생학습, 특히 형식교육 참여가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 안정적인 직종이나 직장으로 재취업 하거나 임금수준이 더 높은 곳으로 재취업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여 형식교육에

참여함

○ 중년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경력 유지

- 삶의 장기적인 시각에서 중장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자 형식교육 등 평생학습에 참여함

○ 재취업을 위한 적성과 흥미 탐색

- 경력전환을 통한 재취업을 위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종을 탐색하고자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함

○ 조직 내 직위 상승 도모

- 입직 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대기업 재직자의 경우 계속해서 조직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형식학습에 참여하기도 함

■ 평생학습 참여 유지의 촉진요인

○ 실질적인 학습 결과 획득

- B 집단 연구참여자들이 장기간 평생학습을 지속하게 된 원동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마다 주어지는 실질적인 결과(예: 자격증, 학위)나 심리적인 결과(예: 심리적 안정감)들이 학습에 대해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평생학습 참여 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긍정적인 경험

- 비형식교육 참여를 통해 적성을 탐색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 평생학습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환류 역할을 하여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향상하고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함

○ 학습의 즐거움 경험

- 다양한 평생학습에 참여하면서 학습 결과를 자기주도적으로 실제에 응용·활용하고 동료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학습 그 자체에 즐거움을 느껴 평생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도 함

■ 평생학습 효과에 관한 인식

○ 직무능력 향상

- 평생학습을 통해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직무 수행 내용이나 방식이 타당한지 확인함
- 새롭게 획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업무를 확장하거나 업무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함

◦ **내적 성장**

- B 집단 연구참여자들이 평생학습 성과로 두드러지게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내적 성장으로 나타남
-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는 대부분 임금수준 향상, 직업안정성 확보, 전직 및 재취업 준비 등 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한 욕구가 바탕이 되었으나, 다양한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평생학습의 주된 효과 중 하나로 인식하며 이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의 동인이 됨
- 자신감 향상 및 긍정적인 심리 상태 형성
 - 자격증 등 학습 결과를 인증하는 구체적인 실체를 획득하고, 평생학습에 참여하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하거나,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 내용이나 방식을 성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자신의 업무능력을 확신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는 경험이 나타남
 - 일과 학위과정을 병행하며 열심히 배우고 과제를 해내는 자신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함
 - 형식교육 참여를 통해 취득하는 학위가 향후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 주므로 자신감을 갖게 됨
 - 평생학습과 그 결과를 통해 향상된 자신감은 희망과 낙관성 등 긍정적인 심리 상태와 삶의 태도로 전이되기도 함
- 평생학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이 직무 성과로 이어져 성취감을 느낌
- 형식학습 참여를 통해 학습 능력, 태도, 전략 향상을 경험함
- 다양한 평생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발견하는 기회를 가짐
-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타인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삶의 활력 증진을 경험함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확장**

-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만난 동료학습자, 강사, 관련 행정직원 등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인맥이 넓어지고 서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심리적 지지를 하는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장을 경험하기도 함
-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파생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 경력개발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함
- 동종업계 종사자로 구성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지식 공유 네트워크 형성을 경험함

■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인식**

◦ **근로소득 수준 향상**

- 재취업을 통해 유의미한 근로소득 수준 향상을 경험한 연구참여자는 연봉 상승이 평생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인식하는데,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 직무 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축적되어 현재와 같은 근로소득 수준의 큰 변화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인식함

○ 학력 상승

- B 집단 연구참여자 4인 중 3인이 노동시장 입직 이후 학력 상승을 경험하였고 현재 이들은 박사과정 재학·수료 상태임

- 다양한 평생학습에 참여하며 학습에 대한 자신감 및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는 학위취득을 위한 형식교육 참여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인식함

○ 직업안정성 향상

- B 집단 연구참여자 모두 직업안정성 향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시간제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형태로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정년퇴직 후 전문가로서 활동할 가능성을 향상하거나, 혹은 계약직이지만 평생학습을 통한 고용가능성 향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도 함

○ 사회적 계층이동에 관한 낙관적 태도 형성

- B 집단 연구참여자들은 평생학습 참여가 사회적 계층의 상향이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데에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것, 결정적으로 형식교육에 참여하여 학력을 상승한 것에 기인한다고 인식함

- 주목할 만한 점은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처우가 더 나은 곳으로의 이·전직뿐만 아니라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학습과 일에서 성취 경험을 누적함으로써 자신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도 하는 것임

- 즉, 평생학습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학습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성취감과 자신감,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오며 이것이 환류로 작용하여 평생학습에 활발히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이 객관적·주관적 계층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3. [C 집단] 경력전환 및 경력단절 경험 근로자 집단 주요 연구 결과

(1) 연구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 C 집단은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이전에 종사하던 직종에서 새로운 직종으로의 경력전환을 경험한 노동 시장 취약계층 근로자 7인으로 구성됨

- 일과 평생학습을 병행하며 전직한 근로자 3인과 결혼·출산·육아로 경력단절 후 미취업 상태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한 후 경력전환 및 재취업을 한 여성 근로자 4인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특성에 따라 2개 집단으로 나누어 FGI를 실시함
- 연령은 30대가 4인, 40대가 2인, 50대가 1인이며, 남성 2인, 여성 5인으로 구성됨
- 노동시장 입직 시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인, 2~3년제 대학 졸업이 4인, 4년제 대학 졸업이 1인임
- C 집단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학 부설 직업훈련전문기관, 기업 부설 교육훈련기관, 사내 교육 등의 평생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2) 주요 연구결과

■ 평생학습 참여 동기

- **직장생활 중 전직 준비**
 - C 집단 연구참여자 중 직장생활을 하며 전직을 준비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현재 직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적극적인 교육기관 탐색을 통해 회사 생활과 병행 가능한 자격증 취득 연계형 주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신기술 관련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해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시간적·재정적 부담이 큰 고등교육 수준의 형식교육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기간이 짧고 취업과 연계된 정부 지원의 비형식교육에 참여함
- **경력단절 후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준비**
 - C 집단 연구참여자 중 경력단절 여성들은 노동시장 입직 이후 결혼 및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자 하였으며,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등 비형식교육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직종으로 진입하기 위해 형식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 **전직 후 새로운 직무에서 숙련 수준 향상**
 - 경력을 전환한 연구참여자들은 재취업을 위해 참여한 비형식교육만으로는 실무에서 일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움을 경험하여 숙련 수준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함
 - 특히 IT 분야로 전직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신기술 도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재취업 이후 무형식학습 형태의 실무 경험만으로는 숙련 수준 향상에 한계를 체감하고 지속적인 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며, 숙련 수준 향상과 직무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비형식교육에 참여함
- **학력, 직급, 직업안정성 향상 기대**

- 학력 상승, 직장 내 직급 상승에 대한 욕구, 직업안정성 향상에 대한 욕구 등 사회적 계층 상승에 대한 욕구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함
- 중장년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종 관련 역량개발을 위해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형식·비형식교육에 참여하기도 함

■ 평생학습 참여 촉진요인

○ 평생학습기관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훈련기관이나 대학이 학습자의 거주지 혹은 직장 근처에 위치하여 물리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할 경우 평생학습 참여 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가족의 추천 등 주변인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 이전에 해당 평생학습 지원기관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심리적 접근성이 높아져 평생학습 참여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의 학습 중심 문화

- 교육훈련이 근로자 개인 및 조직의 성과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조직의 신념에 기초하는 조직의 학습 중심, 학습 장려 문화는 근로자들의 비형식교육, 무형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생학습 참여 목표 달성 경험: 재취업 성공

- 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향후 재취업을 위한 직무·직종 탐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남

■ 평생학습의 효과에 관한 인식

○ 경력전환을 통한 재취업 성공

- C 집단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비형식교육 형태의 평생학습 참여가 새로운 분야 지식과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재취업을 가능하게 하였고, 경력전환 후 업무 적응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함
- 평생학습 결과물(예: 포트폴리오, 자격증)을 통해 학습 내용을 증명한 것이 재취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기도 함

○ 체계적인 형식교육을 통한 전문성 개발

- 학점은행제를 통해 4년제 대학에서 형식교육에 참여하고 대학 평생교육원의 여러 자격증 취득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기초 및 심화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숙련 수준 향상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는다고 인식함

- 단기 비형식교육 참여는 숙련 수준 향상에 한계
 - 신기술 분야 정부 지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IT 직종으로 전직한 근로자는 해당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가 기초적인 기술과 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실제 업무 수행 시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며, 재취업 이후 숙련수준 향상을 위해 참여한 재직자 교육은 이전에 참여한 기초교육과 중복되거나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평생학습 참여가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함
- 직업 및 학습에 관한 긍정적 태도 형성
 - 평생학습을 통해 전문가로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평생학습 내용을 직무에 적용하여 성과를 향상하고 내면 변화를 통해 일과 삶, 평생학습에 대한 주도적·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도 함

■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인식

- 경제활동 재개 및 유지
 - 경력단절 후 재취업에 성공한 여성 근로자들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득한 자격증 및 획득한 지식과 기술로 재취업 가능성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며,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하였으므로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함
- 경력전환을 통한 근로소득 수준 향상
 - C 집단에 속한 많은 연구참여자들-전문직 관련 종사자, 사무직, 기능직 종사자를 중심으로-이 경력전환 이후 처우 수준이 더 나은 직종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임금 향상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향상에 평생학습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인식함
 - 경력전환 이후 다양한 사내 교육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업무 역량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주도적·진취적인 태도 및 자신에 대한 관점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직무 성과 향상 및 소득 수준의 유의미한 향상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소득 수준은 높지 않지만 향후 자기 계발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소득수준 향상을 기대하기도 함
- 직업안정성 향상
 - 국가 자격증 취득을 통해 전문직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된 연구참여자는 현재 종사상 지위와 관계 없이 평생학습을 통해 개발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직장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직업에 정년이 없어 고령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식하며, 직업안정성이 증가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사회적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적 지위 상승
 - 정기적인 사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무 성과가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직장의 성과 기반 보상체계에서 조기 승진이 가능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음
 - 평생학습을 통해 직무 관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인식과 함께 전문직으로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함
-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영향 미미
 - IT 직종으로 경력을 전환한 연구참여자는 전직 이후 참여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체계성 부족으로 인해 평생학습 참여가 숙련 수준 향상 및 승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인식하기도 함

IV. 정책제언

- 연구참여자 집단별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선행연구 결과와 학계, 연구기관 및 직업훈련 기관에 소속된 직업훈련, 고용정책,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대상 FGI 결과¹⁴를 종합하여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학습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평생학습은 인적자본, 정체성 및 긍정 심리 자본, 사회적 자본의 향상을 가져오고¹⁵ 이를 바탕으로 고용가능성이 향상되어 사회적 이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¹⁶
- 따라서 개인이 평생학습 참여를 결정하는 인지적 판단 과정에서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A, B, C 집단 연구 결과, 취약계층 근로자는 자신에게 평생학습 요구가 발생할 때 평생학습 제공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높고 평생학습이 취업·재취업, 소득 수준, 직업적 지위 향상에 유용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생학습 참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남
 - A집단 연구 결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험은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¹⁴ 총 6인의 전문가가 FGI에 참여함

¹⁵ Schuller et al.(2004)

¹⁶ 박경환(2011), Gloster et al.(2015)를 이정우(2019)에서 재인용

- 취약계층은 학령기 학교교육에서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형성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학습 동기 수준이 높지 않거나 학습 전략 또한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시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의미 형성과 함께 성인기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및 학습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역량 강화 및 배치 확대가 요구됨
- B집단 연구 결과, 장기간 지속적인 평생학습 참여는 학습 자체의 즐거움, 동료학습자와의 사회적 교류의 즐거움과 유용성, 학습에 대한 메타인지, 학습을 통한 일과 삶 전반에 대한 태도 변화 등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경험이 환류로 작용하여 평생학습 참여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줌
- 성인학습자의 자기 이해, 환경 변화 이해, 자기효능감 및 자기주도학습 역량 향상, 일과 삶에서 학습 결과를 적용하여 성취와 변화를 경험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 설계, 학습 상담 및 컨설팅 등 종합적인 학습 상담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¹⁷

2. 숙련수준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체계성 확보 및 접근성 향상

- 직종별 취약계층의 숙련수준 향상 요구에 기반한 효과적인 평생학습 지원 정책 설계·실행
 - A 집단과 같이 무형식학습의 효과가 높고 경력으로 인정받아 궁극적으로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연결¹⁸될 수 있는 직종은 정부가 비형식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균형적인 관점에서 직무 수행 현장에서의 무형식학습 지원을 확대·강화해야 함
 - 기업 맞춤형 현장훈련(S-OJT) 및 중소기업 대상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B 집단과 C 집단의 사무직 및 전문직 관련 직종은 비형식교육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형식교육 참여를 통한 학력 상승 및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적 이동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의 평생직업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여 학위 취득 과정으로서의 형식교육 및 숙련 수준 향상을 위한 비형식교육과 무형식학습 기회를 균형 있게 제공하고 상호 연계¹⁹
 - 대학에서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해 취약계층 평생학습비 지원을 확대하고²⁰ 자녀 양육기에 있는 성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²¹
 - 한편, A 집단과 B 집단 연구결과,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계층의 정서적

¹⁷ 송선희, 노유석(2017), 황영아, 이선희, 전소미(2020)

¹⁸ Finn(2000), Van der Heijde and Van der Heijden(2006)를 조운형, 남주현(2017)에서 재인용

¹⁹ 임영희, 권인탁(2018), 한송희(2019)

²⁰ 박병영 외(2019), 임영희, 권인탁(2018)

²¹ 박병영 외(2019), 박성희, 권양이(2019)

지지, 경력개발 네트워크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에도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가 가능하도록 성인학습자 동창회 구성 및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²²

3.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지원 서비스의 연계

- 중장기적 관점의 개인 맞춤형 생애 경력개발 지원 서비스 제공
 - B 집단 연구 결과, 노동시장 취약계층은 불안정한 고용상 지위나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직장 이동 및 경력전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축적된 평생학습 경험은 이·전직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A, B, C 집단 연구 결과, 성인들의 교육훈련 참여는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하여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종 탐색 기회가 되기도 하므로, 노동시장 입직 이후에도 교육훈련 참여를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야 함
 - A 집단과 B 집단 연구 결과는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력개발 및 지식공유 네트워크가 확충될 가능성을 보여주나 대체로 평생학습의 주요 성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대, 유지를 돕는 평생학습의 설계 또한 필요함
 -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및 접근성 측면에서 현재 정부와 기관은 ‘임박한 고용’을 위한 취업률 향상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위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숙련수준 향상, 경력전환 지원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인 중심의 평생학습과 경력개발을 연계한 역량개발 지원체계가 필요함
 - 단기 취업을 향상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정책 목표에서 근로자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으로 정책목표 변화가 필요하며 정책평가 시 이에 적합한 성과 지표를 활용

4.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 체계 확립 및 정착

- 신뢰성이 높고 다양한 직종에서 사용자 활용이 용이한 평생학습 결과 인증체계 정착
 - B 집단 연구참여자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사회적 이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학습 결과가 자격증 및 학위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임
 - 평생학습 결과가 노동시장에서 채용 및 보상에 활발히 활용되고, 대학 진학 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수준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

- A 집단과 B 집단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직종에 따라 효과성이 높은 평생학습 유형이 다르고 실제 현장에서 가치를 두고 인정하는 지식의 유형이 다름
 - 자격증 제도뿐만 아니라 무형식학습 등 다양한 평생학습 결과물이 노동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결과 인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에서 학력과 자격 간 호환 체계를 설계하고 보장해야 하며, 직업교육훈련과 대학교육 간 투명성을 강화하여 학력,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및 현장 경험 등을 포괄하고 상호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개선·정착시켜야 함²³

5.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직종으로의 경력전환 지원

-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의 경력주기가 짧아지고 잦은 직업 변경으로 경력전환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며²⁴, 직무자동화는 숙련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²⁵
- 본 연구 결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평생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경력전환 시 사회적 계층이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수준, 직업적 지위, 고용가능성 향상이 가능한 직종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정책 확대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됨
 - 청년층 대상 신산업, 신기술 관련 직종으로의 경력전환을 위하여 비형식교육을 통해 적성과 흥미 탐색, 취업 역량 향상 및 체계적인 형식교육을 통해 숙련 수준 향상을 지원해야 함.
 - 이를 위해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이해, 취약계층 학습자 특성에 관한 이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관련 전문성, 대학 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관련 전문성과 지원이 요구되므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정부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 중장년층 대상 다양한 기간과 형식의 전직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간 효과성과 접근성을 비교하여²⁶ 중장년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효과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경력단절 여성 대상 단기 목표의 취업 연계 과정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이 필요함
 - 더불어, 이러한 평생학습 정책 노력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한 직종으로의 경력전환이

²³ 문한나 외(2021), 박병영 외(2019), 박성희, 권양이(2019), 한송희(2019)

²⁴ Daheim and Wintermann(2016)

²⁵ OECD(2019)

²⁶ 문한나, 최영섭, 홍성표(2020)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적 발판(예: 노동시장 유연화, 세제 개편 등)이 마련될 때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²⁷

V.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평생학습과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경험과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탐색하고자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함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A, B, C 집단에 속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 평생학습 효과 및 사회적 계층이동에 관한 경험이 ‘어떠한’ 방식으로 ‘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렇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였음
 - 오늘날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 문제 또한 복잡성, 불확실성, 주관성, 동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책 대상의 맥락과 인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질적 연구는 정책연구로서 의의를 지님²⁸
- 본 연구결과는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므로 노동시장 취약계층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집단별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함
-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A, B, C 3개 집단별 연구참여자 인원수가 비교적 균등하지 못하고, B 집단은 연구참여자 수가 적은 한계가 있음
-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다루기 위해 패널 데이터 등을 활용한 계량적 접근의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의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연구 대상을 체계적으로 확장하는 질적연구 수행이 필요할 것임

²⁷ 국민대통합위원회(2016)

²⁸ 이성우(2008)

참고문헌

- 강태중·조순옥(2010). 「평생학습의 사회적 성과 탐색 - 국민 보건의 향상, 사회 민주화와 인권 보장, 사회평등의 진흥을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6(4), 243-270.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9). 『201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국민대통합위원회(2016).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성 논쟁-기회의 수저는 없나?」(2016. 6. 30. 보도자료)
- 김동규·김종진·김한준·최영순·최재현(2017). 『4차 산업혁명 미래 일자리 전망』.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김종윤·오소영·최지현·조대연(2020).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요구분석과 정책제안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6(2), 161-184.
- 나연선·최지희·김상호(2003).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 저학력 저숙련 계층의 성인학습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남재욱·류기락·김영빈·변영환·최승훈·크리스티나 히슬(2019). 『직업교육과 사회이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2019-01).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류기락(2017). 「자동화 위험의 불평등」. 『경제와사회』, 116, 187-215.
- 문하나·이동임·최지희·김수원·손규태·곽미선·김유미·이세미·김태은(2021). 『산업계 주도 산업인력양성 선순환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문하나·최영섭·홍성표(2020). 「중기 경력자(Mid-career)의 전직지원서비스 참여 특성과 고용가능성 인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39, 123-148.
- 박가열·천영민·홍성민·손양수(2016).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2016. 30).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박경환(2011). 「평생학습자의 일-학습 상호작용이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6(5), 1-26.
- 박병영·김태준·류기락·이은정·이정우(2019).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방안』.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박성희·권양이(2019). 「Bologna 프로세스 이후 독일 대학 평생교육 체제 동향과 시사점」. 『평생학습사회』, 15(2), 1-22.
- 변종임·홍준희·조윤성(2020).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38(2), 1-23.
- 성문주, 박지원, 강현주, 김지영, 이상훈(2021).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과 사회적 이동성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03, 서울: 국회미래연구원.

- 양승실·양홍권·김선희·김현수·한정란·임영희(2015).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학습 효능성 제고 방안: 대학과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양홍권(201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평생교육의 과제」. 『평생교육학연구』, 18(2), 103-130.
- 오호영(2018).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일자리 충격」. 『한국경제포럼』, 11(2), 93-115.
- 이성우(2008). 「후기 실증주의와 질적 연구방법의 정책분석평가연구에의 적용가능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15-42.
- 이정우(2019).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평생 직업교육훈련 참여의 관계」. 『Andragogy Today』, 22(3), 1-25.
- 임영희·권인탁. (2018). 대학평생교육정책의 실태분석과 전략. 열린교육연구, 26(1), 95-115.
- 정혜령·정민승·윤창국·진성미·현영섭(2015). 『성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의 사회적 성과 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조윤형·남주연(2017). 「무형식 학습이 조직구성원들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개인-직무, 개인-조직 적합성의 조절효과」. 『생산성논집』, 31(3), 99-134.
- 한승희(2002). 「평생학습시대는 오고 있는가」. 『평생교육학연구』, 8(2), 1-20.
- 한승희.(2019). 「교육개혁, 이제는 고등평생학습개혁에 사활을 걸어라」. 『교육비평』, (44), 121-154.
- 한준(2016). 「한국의 사회이동: 현황과 배경」. 『현상과 인식』, 40(4), 45-73.
- 황영아·이선희·정소미(2020). 「대학 내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생활 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1), 771-795.
- Daheim, C., & Wintermann, O. (2016). 독일 베텔스만재단 '2050년 노동의 미래' 보고서: 밀레니엄 프로젝트 조사결과.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2016년 6월호), 25-46.
- Finn, D. (2000). From full employment to employability: A new deal for Britain's unemployed?.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21(5), 384-399.
- Gloster, R., Buzzeo, J., Marvell, R., Tassinari, A., Williams, J., Williams, M., Swift, S., & Newton, B. (2015). The contribution of further education and skills to social mobility. BIS Research Paper # 254.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UK.
- ILO. (2018).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jobs. ILO.
- Kelly, S., & Kelly, C. (2009). Subjective social mobility: data from 30 nations. in M. Haller, R. Jowell & T. Smith. (eds). Charting the globe: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4-2009. London: Routledge.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9). The Future of Work: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Paris: OECD.
- Schuller, T., Preston, J., Hammond, C., Brassett-Grundty, A., & Bynner, J. (2004). The benefits of learning: The impact of education on health, family life and social capital. Routledge.

- Van der Heijde, C. M., and Van der Heijden, B. I. J. M. (2006), “A competence-based and multi-dimensional operation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mployabil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45(3), 449-476.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정영훈(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혁신성장 그룹장)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삶의질 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12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2.18.
13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을 중심으로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3.4.
14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3.18.
15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4.1.
16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4.15.
17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4.29.
18	일하는 국회의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5.13.
19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5.27.
20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1.6.10.
21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혁신성장그룹장)	2021.6.24.
22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자살률	박상훈(거버넌스 그룹장) 외	2021.7.8.
23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분석 사례	김유빈(연구지원실장)	2021.7.22.
24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8.5.
25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삶의 질 그룹장)	2021.8.19.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26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9.3.
27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1.9.16.
28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거버넌스 그룹장)	2021.10.7.
29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거버넌스그룹 부연구위원)	2021.10.21.
30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1.4.
31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부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1.11.18.
32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9.
33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 아동 및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 시설의 분포 분석을 중심으로	이채정(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6.
34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 완화와 적응	민보경(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2.23.
35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30.
36	미래비전 2037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	김유빈(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1.10.
37	장애인 운동 20년, 장애 입법 20년: '이동권'에서 '탈시설'로	이상직(삶의질그룹 부연구위원)	2022.1.24.
38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허종호(삶의질데이터센터장)	2022.2.7.
39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장)	2022.2.21.
40	타협의 정치와 갈등 관리: 한국 법인세율 결정과정 분석	박현석(거버넌스그룹장)	2022.3.7.
41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시사점	이선화(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2022.3.21.
42	디지털전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시사점	여영준(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4.4.
43	기후변화 5대 영향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다	김은아(혁신성장그룹장)	2022.4.18.
44	'국가'와 '국민'을 줄여 써야 할 국회	박상훈(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문지혜(거버넌스그룹 연구행정원) 황희정(혁신성장그룹 연구행정원)	2022.5.2.
45	미래 전망의 프레임과 개선안	박성원(혁신성장그룹 연구위원)	2022.5.16.
46	노동시장 취약계층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 제언	성문주(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2.5.30.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